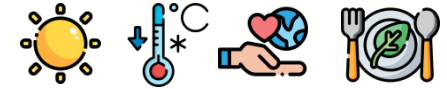


더 자스민 일보(一步)



당신 행복을 바라는 글로 전하는 마음♥



- 글은 "밑줄 클릭"만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

Since 2020

[1118] 1일1발견이라는 주제로 연재 시작해

강서: 김포공항이 있는 곳

열다, #자스민 글방을



강서구에 사는 릭비 아내 아일린

“1118(1일1발(견))을 주제로 연재합니다. 매일 사소한 '기록'을 목표로 하고, 일상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스민이 이번 시리즈를 내놓은 포부다. 작가라면 모든 처음 마주한 것처럼 관찰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오래도록 잊고 살았다. 바로 호기심. 낯선 것과 만난 우리 태도말이다.

스치는 사소한 일상을 새로 바라보고 싶었다. 필통에 지나지 않던 정물을 자스민 내면으로 여기기도 했고, 스타렉스 위에 장식된 우디와 버즈(토이 스토리 남주들)를 보고 차주의 마음을 읽기도 했다. 발견은 끝없을 것이다. 창작이 그러한 것처럼, 발견 또한 그러한 일일 것이다.

<https://blog.naver.com/bestjasmineever/222603437020>



강연소식

- 주제 : 직장 다니며 1년에 4권을 냈다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QnA 버전)
- 날짜 : 2021.12.30(목) 밤 9시 ([자세한 안내](#))



여기 살며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비행기를 본다. 뜨고 싶을 때 뜰 수 없는 신세라 볼 때마다 마음이 진동한다.

“[나도 가고 싶다.](#)” 입버릇이 되었다.

자유로워 즐거운 일이라는 쓰기의 본질을 실현시킨 공간, 자스민 글방을 열다. 글쓰기는 누가 시켜서, 좋다 하기에, 배워야 한다기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책 쓰는 일과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글방에서는 ‘쓰는 즐거움’만 챙기기 위해 사사로운 피드는 과감히 생략하기로 했다. 주술 호응이랄지, 비문 제거랄지, 중복금지 같은 조언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롯이 자유롭고 즐겁게 쓰기로 했다.

글방 멤버로써 참여를 원한다면 아래 블로그 주소를 클릭하면 된다.

<https://blog.naver.com/bestjasmineever/222605842647>

